

월요광장

혁신도시의 과제, 삶의 지역화



이 상 면
광주대 교수

나주 혁신도시에 많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주해 오고 있다. 노동력의 유출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적이다. 바로 사람이 지역경제 담당의 주체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노동력이란 생산의 주체를 말하지만 지역경제가 생산만을 위한 경제가 아니라 생산, 소비, 분배의 연관성 속에 파악되어야 할 것이라면, 노동력에 대한 정의는 생산, 소비, 분배의 주체 즉 생활인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주해 오는 사람들은 단순히 기관의 직원이 아니라 나주 혁신도시에서 생활하는 주민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그들의 생활이 지역적이 될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극대화된다.

현대인들의 삶이 황폐화되고, 파편화된 데에는 인간 노동의 상품화에 기인한 바가 크다. 노동력이 상품으로 거래되면서 사람들의 생활에 엄청난 질곡을 강요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노동력은 생활현장에서 떨어질수록 효용이 높아진다. 생활현장을 떠나면 가족 및 공동체의 행사와 격리되면서, 오로지 일만 하고 가족에게 송금할 생각만 하게 된다. 단신 부임이 일 변화된 한국, 일본의 노동효율성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기관도 대기업을 살아있는 인간들의 집단이다. 인간의 신체나 가족생활은 식생활, 수면, 출산 등 생명계의 리듬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대기업이나 기관 등은 생명과정의 제약에 도전하고 조절을 시도한다. 공장은 3교대로 밤낮없이 조업하고, 은행은 휴식 없이 일을 한다. 인간은 반드시 죽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지만, 법인은 죽음을 전제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죽지 않는’ 법인이 ‘반드시 죽는’ 인간을 지배하면서, 직원들의 생활과정을 배려하지 않는다. 또 생활에서 노동을 분리하고 노동력만으로 가치를 평가하면서 극심한 임금격차를 초래하고 인간의 생활은 갈수록 황폐해진다.

생활현장과 분리돼 상품화된 노동력을 다시 생활로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삶의 지역화’다. 상품화된 노동력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노동력을 생활현장으로 끌어들이는 시도는 가능하다. 즉 단신 부임을 지양하고 출퇴근 시간을 최대한 줄이며 가능한 한 노동현장과 생활현장을 가깝

게 하는 것이다. 노동이 생활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노동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 생활인이 노동자보다 우선하고, 생활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 인간 회복의 지름길이다.

인간 활동으로서의 경제과정과 생활과정 양자 통합 시도는 생활현장을 전제로 하는 이상 지역이 기반이 될 수밖에 없다. 경제과정을 포함하는 생활현상으로서 지역, 그리고 생활현장을 함께 공유하는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사회에서 주민, 지자체, 사회단체들이 삶의 지역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다. 우리들의 삶이란 게 지역에 정착하여 생산하고 소비하며, 자녀를 교육하고,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며 지내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돕는 모든 것이 삶의 지역화이다.

오는 분들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쾌적한 주거공간을 만들고, 지역의 문화·예술을 소개하고, 지역을 가르치는 장을 만들고, 지역 생산품 구매운동도 같이 전개하고, 자녀들에게도 삶의 터전인 지역의 아름다움을 공유하게 하여 더욱 지역이 활기차게 만들어야 한다.

단순한 노동력의 이동이 아닌 생활인으로서 지역과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과 연결되는 통로를 적극적으로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역과의 만남

이 이루어지고, 만남은 지역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증가시키며,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생활터전인 지역이 편안하고 따뜻한 동지가 될 수 있다.

또 지역 차원에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한 새로운 생활현장을 조성하는 것은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 길이다. 지역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활동들이 많아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 이윤이 중심이 아닌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들이 많아질수록 인간성 회복이 빨라진다.

이 과정에서 정보와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새로이 이주해오는 분들이 지역에서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들이 나주에서 진정한 삶의 동지를 틀면서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하드웨어는 물론 많은 소프트웨어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우리 고장은 생명과 자연의 가치를 충분히 공감하면서 공동체 생활의 장을 전개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잘 산다’는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나 삶의 지역화 없이는 잘 살 수 없다. 주민들 삶의 지역화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길이다.

기고

두바이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



임 내 현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구을

‘두바이의 기적은 한강의 기적과 같다. 양자가 협력하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최근 국제검사협회 연례총회 상원의원 자격으로 참석차 두바이에 다녀오면서 총영사관저 방문록에 남기고 온 글이다. 지금의 두바이를 금융·관광·항공의 중심지로 부르는데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두바이는 세계 최고층 빌딩을 자랑하는 버즈칼리파와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스카이트리 공복장을 활용한 관광산업으로 세계 5위의 관광대국으로 불리고 있다. 세계 2위의 항공수송량을 가진 두바

이 허브공항을 통해 4시간 내에 세계 3분의 1, 그리고 8시간 내에는 세계 3분의 2를 갈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1987년까지만 해도 두바이는 황무지에 가까웠다. 아랍에미리트(UAE) 7개 도후국 중 가장 무사는 지역이었던 두바이는 정주민이 200만명, 사막이 대부분인 작은 땅덩어리다. 산유국이라고는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매장량 40억 배럴 등이 가진 전부였다. 그러나 두바이의 지도자인 셰이크 모하메드 국왕은 풍족하지 못한 자원을 극복하기 위해 창조적 개발 아이디어와 인적 자원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경제관료들은 두바이를 허브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전략적으로 외국기업 유치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법인세를 완전 면제하고 외환 거래를 무제한 허용하는 등 무모해 보이는 선택까지 마다하지 않았고, 영어를 제2공용어로 하고 부동산을 사는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내주는 등 중동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그 결과 모두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

던 ‘탈 석유경제’의 꿈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UAE의 말형격인 아부다비가 UAE 전체 석유 매장량의 85%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두바이는 석유 생산량이 0.5%에 불과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약점 덕분에 일찌감치 국가의 미래를 위한 창조적 투자를 진행해왔고 지금의 두바이의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현재 두바이 인구는 88.5%가 인도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온 외국인인데 이들의 노동력이 두바이 건설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이들 외에 2000명 가량의 외국인 브레인을 받아들여 두바이에 창조 프로젝트를 활용하였다. 두바이에는 작은 베니스가 있다. 사막에 물을 끌어들이어 호텔 리조트 내에 수로를 만든 데까지 들어오게 된다고 하니 그들의 창의력과 상상력, 그리고 도전 정신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아울러 이러한 창의성이 두바이 발전의 근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두바이의 이러한 기적이 하루아

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1900년대 초반부터 두바이 발전을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그것이 금세 눈에 띄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두바이 경제 역시 슬럼프를 맞아 금융위기에 이르기까지 했지만 통치자들과 국민은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한 결과 지금의 ‘두바이의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자연환경적 여건을 넘어서 기적을 일궈낸 두바이의 창조적인 정책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 간 불균형이 크고 강원이나 호남지역의 상대적 낙후도 심한 상태다. 하지만 두바이와 같은 창조적 아이디어를 동원하면 우리의 낙후 지역들도 환경적 요인을 넘어서 얼마든지 번영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두바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창조적 아이디어와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 그리고 과감한 결단은 한강의 기적을 다시 한 번 이루어야 하는 우리 사회에도 꼭 필요한 요소라 생각한다.

법조칼럼

솔직함의 미덕



이 건 호
변호사·법무법인 이우스

요 며칠 이른바 ‘판공 회향’ 사건으로 은 나라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이제는 ‘하니버터집’보다 ‘파카다미아’ 구하기가 더 어렵다는 우스갯소리로 들리고요. 많은 이들이 당시 먼 미국 땅에 홀로 남겨졌던 사무장이 느꼈을 모욕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애초부터 해볼 수도 없을 ‘갑질’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러자 한편에선 이 정도로 못매를 맞을 만큼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자성의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는데 있습니다. 저 역시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구독자 분들처럼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저정

도의 ‘갑’은 결코 될 수 없는 ‘을’입니다. 하지만 ‘마녀사냥’이라는 지적에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사건을 두고 쏟아지는 분노의 목소리가, 단순히 세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을’들이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분출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건 직후 술이 깬 이후라라도 진심어린 반성고 사과가 이루어졌다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오히려 그 다음, 즉 어떻게든 사건을 감추려하고, 속이려하였던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로서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의뢰인이나, 혐의점이 인정되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의뢰인들의 경우, 변호인인 저에게도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그 분들이 사실을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불운하게도 우연과 부주의가 여러 차례 겹쳐 제 3자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였던 것 일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수사기관이든 법원이든 일차적인 판단의 기준은 상식입니다. 변호인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면, 검사도, 판사도 믿어주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저는 의뢰인들의 말을 믿기 어려울 경우, 우선은 제가 가진 상식에 기초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제가 먼저 의뢰인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지요. 변호인인 제 스스로가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검사나 판사들을 설득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 간혹 불쾌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변호사가 도대체 누구 편이냐고, 왜 자신의 말을 안 믿느냐고.

하지만 단순히 의뢰인의 말을 들어주고, 맞추려주지 주는 것은 친구나 가족들의 몫입니다. 변호인인 저로서는 우선 증거관계상 법원의 사실인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상하고, 그러한 법원의 사실인정 하에서 변호인인 제가 이끌어 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와 과정 무엇인지 고민해 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의뢰인이 현

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 법률적 판단에 대해 설명해드려야 하고요.

적어도 저는 그게 저를 선택해 준 의뢰인에게 변호인으로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의뢰인이 고집하신다면, 저 역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뢰인의 말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결국 사건의 당사자인 의뢰인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사건들은 대부분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검사도, 판사도 상식에 벗어나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 검찰청에 다녀왔습니다. 제 의뢰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조사에 참여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조사 중에 검사가 제 의뢰인에게 그러시더군요. 10%의 거짓말 때문에 90%의 진실마저 묻힐 수 있다고. 오늘 제 의뢰인은 참 좋은 검사를 만나고 오셨습니다. 잊지 마세요. 10%의 거짓말 때문에 90%의 진실마저 묻힐 수 없습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광주시·시의회 갈등 시민은 나중에 없나

민선 6기 들어 광주시와 시의회의 행태를 보면 과연 시민의 공복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광주시 산하 기관 인사를 놓고 광주시와 시의회 간 갈등이 점점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현안들을 놓고 시의회가 정상적인 경제의 범위를 넘어 시장에 대한 발목 잡기에 나서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데다 집행부도 의회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소홀히 하면서 소통이 마비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윤장현 시장 출범 직후 시의회가 조직개편안을 거부하면서 한 달 가까이 시정이 표류하는가 하면 산하기관장의 보은 인사 등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파열음을 내었다.

급기야 지난 18일에는 시의회가 윤 시장이 추천한 승년 만찬을 보이콧하는 유례 없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 만찬은 연말에 열리는 정례적인 자리로 시장의 두 축인 시와 의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거하는 의미 있는 자리다.

구제역 확산, 전남권 차단 사활 걸어야

이달 초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돼지 구제역이 점차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남도는 타지역 돼지의 도축 제한, 방역본부 확대 운영, 백신 추가 공급 등 감염 차단에 나서고 있지만 축산농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진천군 진천읍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인근 지역인 증평과 충남 천안에 이어 지난 18일 충북 음성군의 농가에서도 발생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이곳의 감염이 확인되면 10번째 구제역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미 충남북 일대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남도는 유입을 막기 위해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의 돼지를 전남지역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것을 즉각 제한했다. 위기경보 수준도 최고 단계의 바로 아래인 ‘경계’까지 격상하면서 방역본부와 상황실을 확대하고 내년 백신 공급분까지 조기 투입하기로 했다.

구제역은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때를 놓치지 않는 이른바 ‘골든타

임’이 중요하다. 신속한 초기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전남도는 먼저 구제역이 지역의 경제를 넘어오지 않도록 빈틈 없는 차단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방역과 차량소독, 가축 이동차단, 농장 출입금지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한다.

최초로 발생한 진천농장으로 부터 위탁받아 돼지를 사육하는 곳이 전국에 21개 소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남에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 이번 구제역은 예방접종만 하면 100% 막을 수 있는 만큼 전남도는 일단 모든 돼지 사육농가에서 백신접종을 하도록 지도, 점검해야 한다.

구제역은 지난 2010년 말~2011년 초 전국을 휩쓸며 돼지 등 살처분 348만여 마리, 3조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히는 등 양돈농가를 초토화시켰다. 당시 전남은 민관이 나서 유입을 완벽하게 차단한 바 있다. 전남도는 이번에도 사활을 거는 노력으로 ‘구제역 청정지역’의 명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일년 절기마다 색다른 음식을 먹는 것은 오랜 관습이다. 설날에는 떡국을, 동짓날에는 팥죽을 먹는다. 이런 음식 문화에는 음양(陰陽) 사상이 담겨있다. 장차복을 지핀 무쇠 솥의 솥뚜껑을 열면 모락모락 김이 올라온다. 솥단지 가득 붉은 팥죽에 찹쌀가루로 동글동글하게 빚은 새알 모양의 경단이 동동 떠있다.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붉은 색깔을 띠고 있는 팥이 축사(逐邪=오사스러)를 몰려내 내쫓음을 할 힘이 있는 것으로 여겨 음(陰)의 속성을 지닌 역귀(疫鬼)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든 잡귀를 몰려친다고 믿어 왔다.

동짓날 팥죽을 쑤 먹는 풍습은 중국에서 전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 “중국의 공공세(共工氏)가 재주없는 아들을 두었는데 동짓날에 죽어서 역귀(疫鬼)가 되었다. 그런데 이 역귀는 붉은 색의 팥을 두려워했고, 또 동짓날에 죽었으므로 동짓날에 팥죽을 쑤어 역귀를 쫓는 풍습이 생겼다”고 기록돼 있다고 한다.

이런 까닭에 동짓날 팥죽을 쑤어 집안 곳곳에 뿌리는 풍습도 있었다. 예전 요즘 세상은 팥죽이 아닌 일상음식이 됐다. 그렇지만 동짓날 팥죽의 의미는 여전히 남아 있다. 유약한 인간으로서 예나 지금이나 애타고 싶은 맘은 여전히 풀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요 ‘밀양 아리랑’에 “동지선달 꽃본듯이 날 좀 보소~”라는 대목이 나온다. 올해는 유독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한마디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다. 동지 팥죽 한 그릇을 하며 새해에는 애타고 ‘동지선달 꽃본듯이’ 좋은 일들이 많기를 희망한다.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 F A X 222-8005 >	< F A X 222-0195 >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